

틀 의미론으로 해석한 중국어 복합어 생성 과정*

李正心**

〈목 차〉

- I. 들어가며
 - II. 과제의 제기
 - 1. 복합어와 동기부여(motivation)
 - 2. 통사적 對 의미적 관점 간의 소통
 - III. '罷工'의 생성 과정
 - 1. '罷工'의 장면 & 틀 구조
 - 2. '罷工'의 어형 압축(word compression)
 - IV. 복합어의 형식층 & 의미층
 - V. 나가며
-

I. 들어가며

주지하듯, 20세기 초 통시 언어학에서 공시 언어학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것은 Saussure의 구조주의 언어학이었다. Saussure(1916)는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에서 종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언어학의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언어학의 연구 대상은 언어 그 자체이며 언어는 공시적 관계망 속의 체계이며 언어는 실체가 아니고 형식이다. Saussure 이론에서 핵심이 되는 '체계' 개념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나는 이분법적인 구분¹⁾으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51-A00098).

** 성균관대학교 중문과 강사

1) Saussure에게는 이분법적 대립 개념이 있는데, 언어를 랑그(langue)와 빠롤(parole)로 구별하고, 공시대(synchronie)와 통시대(diachronie)로 구분한다. 또한, 언어 기호는 시니피앙(signifiant)과 시니피에(signifié)로 구분한다.

로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까지도 대부분 인정을 받고 있다.

Saussure는 시니피앙(signifiant)과 시니피에(signifié)²⁾가 결합한 모습인 언어 기호에 대해 자의적(arbiträr)이라고 단언하였다. Saussure는 ‘자의성(arbitrariness)’을 언어의 본질적 특성의 하나로 설명했다. 그의 예를 빌리면, b/a/u/m 과 같은 소리 연쇄가 하나의 개념, 즉 커다란 식물이라는 개념과 결합되어 있는 것은 결코 어떤 동기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바꿔 말해,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고 있는 언어 외적인 대상에는 그렇게 이름 부르도록 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처음에 이름을 그렇게 명명했다 해도 이것은 언젠가 바뀔 수 있는 관습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기호의 형식이 되는 기표(signifiant/能指)와 내용이 되는 기의(signifié/所指) 간의 관계는 관습적인 것이지 필연적인 동기부여(motivation)가 아니라는 것이다.³⁾

사실,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의미의 문제로서 형태와 의미의 관계가 관습적인가 아니면 유연적인가하는 것이 있다. 형태와 의미 간의 대응은 순전히 사회적 약속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관점과 형태에는 각각 고유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관점이 서로 대립해 왔다. 이 논의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속되었다. 언어는 주체와 외부 세계의 경험으로부터 동기화된다고 하는 인지언어학의 기본적인 명제는 이 문제를 현대적으로 다시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최근에 인지언어학자들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도상성(iconicity)에 관한 일련의 연구는 Saussure 이래로 많은 언어학자가 믿어왔던 신념, 즉 ‘언어는 자의적 기호로 구성된 체계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언어 구조의 자의성은 구조주의 시기에 특히 강

2) 랑그는 언어 기호로 구성되는데 Saussure의 기호 이론에 따르면, 귀로 감지할 수 있는 청각 영상(sonority image)은 표상(concept)을 전달한다. 이 둘은 마치 분리되지 않는 한 장의 종이처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심리적이고 추상적으로 실재한다고 했다. 그는 기호의 형식을 시니피앙(signifiant)이라 했고, 기호의 내용을 시니피에(signifié)라고 지칭했다. 이정민, 배영남, 김용석, 《언어학사전》(서울, 박영사, 1987), 793쪽 참조.

3) motivation은 ‘유연성’ 또는 ‘동기부여’라고 번역되곤 한다. 대부분은 이 두 용어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지만, 구분하자면 ‘유연성’이 관계의 결과 쪽에서 본 개념이라면 ‘동기화’는 관계의 원인 쪽에서 본 개념이다. ‘유연성’ 또는 ‘동기화’는 ‘자의성(arbitrariness)’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자의성을 언어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인정하면 언어가 ‘왜 지금과 같은 모습을 띠는가?’ 하는 고민은 중요치 않고, 그저 언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만을 중요시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인지언어학에서는 자의적인(arbitrary) 층위를 넘어 언어가 왜 그러한가 하는 이유를 탐색한다.

조되었으며 변형생성문법 시기에도 별다른 의심 없이 수용되어 왔다.⁴⁾

도상성(iconicity)이란 언어 기호에서 형태가 어떤 식으로든 의미를 반영한다는 언어의 성질이다. 최근의 도상성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은 언어의 형태와 의미 사이에 유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객관주의 언어학과는 다르며, 체험주의 철학에 근거한 인지언어학의 정신을 잘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언어 구조에서 형태와 의미의 관계는 순전히 자의적인 것만이 아니라 논증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II. 과제 의 제기

1. 복합어와 동기부여(motivation)

지금까지 언어 구조의 도상성이나 동기부여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통사부 차원에서 다루어졌다.⁵⁾ 이에 비해, 어휘부에서는 언어 기호의 의미와 형태 사이 관계에서

4) 사실, 'icon'이란 술어는 Saussure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Peirce(1914)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기호를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 세 가지로 나누었다. 그 중 icon은 형태가 지시물을 닮은 기호를 가리킨 것으로 의미하는 것과 의미되는 것과의 유사성에 기초를 두었다. 설게도나 지도는 도상의 전형적인 예로서 기호가 실제로 건물이나 지형의 모습에 바탕을 두고 있다. Jakobson(1965)은 도상성에 관한 Peirce의 정신을 바탕으로 Saussure의 자의성을 최초로 반박하였다. 도상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Haiman(1980)에서 이루어졌다. 임지룡, 《인지의미론》(서울, 탑출판사, 1997), 372-373쪽 참조.

5) 戴浩一, 〈時間順序和漢語的語序〉; 黃河譯, 《國外語言學》1988년 제1기, 10-20쪽 참조. 劉寧生, 〈漢語怎樣表達物體的空間關係〉; 《中國語文》1994년 제3기, 169-179쪽 참조. 戴浩一(1988)는 두 개의 통사적 단위들의 배열순서는 언어 사용자의 인식세계 속에서 그 두 단위들이 나타내는 상황의 상대적인 순서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것을 '시간적 순서의 원칙(temporal sequence principle)'이라 불렀다. 다음 두 가지 예문을 보면,

(a) 他在馬上跳。 그는 말 위에서 뛴다.

(b) 他跳在馬上。 그는 말 위로 뛰었다.

실제 세계, 혹은 최소한 화자의 인식 속의 세계에서의 순서가 언어 형태의 순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劉寧生(1994)에 의하면 사람들은 물체를 인식할 때 목적물과 참조물로 인식한다. 중국어에서는 비교적 크고 고정적이고 지속적이고 복잡하고 이미 알고 있는 특징을 가진 명사성 성분이 참조물이 되는 경향이 짙고, 비교적 작고 이동적이고 일시적

볼 때 도상성이나 동기부여와 관련한 문제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복합어의 구성요소들 자체가 완전히 자의적인 기호이고 그 배열순서도 예측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향이 뚜렷했다. 그러나 언어 기호의 자의성 원리는 만약 제약 없이 적용되면 언어를 극도로 복잡하게 하는 비합리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카오스적 시스템인 언어를 부분적으로 교정할 질서와 규칙의 원리, 곧 동기부여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하기에 문법 규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통사적 기호인 구나 문장 차원에서는 도상성이 성립함을 밝히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독 어휘부 차원에서는 언어 기호의 의미와 형태 사이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 물론 통사부에 비하면 어휘부에서 의미와 형태 간의 동기부여를 밝히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렵다는 것이 불가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러한 의미 형태 간 동기부여 관계가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론적 인과 관계의 뜻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지언어학은 예측성을 갖는 학문이 아니므로 예측을 용이하게 하는 구체적인 보편소를 추구하지 않는다. 즉, 한 가지 현상에 대해 여러 동기들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런 동기들의 패턴에 대한 탐구는 언어적 보편소가 아니라 인지적 보편소를 찾고자 한다. 예를 들면, 양사 '條'는 일반적으로 '길고 가는 것'을 나타내는데 구체적으로는 '바지', '뱀', '허리띠' 등에 쓰인다. 그러나 동시에 양사 '條'는 '손수건', '뉴스', '생명' 등에도 쓰인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條'의 확장의 방향이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아무렇게나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條'가 어떤 명사를 세는 데 쓰일지 유일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어떤 사물이 그 양사로 셀 수 있게 된 데에는 그 나름의 동기가 있다는 것이다.

변형생성문법에서는 의미 형태의 결합이 일반 규칙에 의해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이고 단순하고 미지의 특징을 가진 명사성 성분이 목적물이 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면, '教會堂左邊的醫院'에서 '教會堂左邊'는 참조물이고 '醫院'은 목적물이 된다. 중국어 어순에서 참조물은 목적물 앞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수식 구조에서 수식어가 중심어 앞에 오는 어순을 만든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도상성에 의한 동기가 있다는 근거로 모두 통사적 배열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비록 그들의 연구가 어휘부의 도상성을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어휘부 층위에서도 도상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었다.

자의적인 것으로 보아 모든 언어 현상을 자의적인 것이나 예측 가능한 것 들 중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반면에 인지언어학에서는 언어의 대부분 현상은 완전히 자의적인 것도 완전히 예측 가능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어느 정도 동기부여된 것이다. 즉, 동기부여는 자의성과 예측 가능성의 양극단 중간에 있는 연속적인 정도의 문제로 이해된다.

그동안 중국학자들은 복합어 연구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대부분 ‘意合’ 또는 ‘約定俗成’이라고 하며 넘겼다. 일부 학자는 복합어는 형태와 의미 간에 논증할 수 있는 규칙이 없다고까지 단언했다.⁶⁾ 그러나 이것은 복잡다단한 언어 구조를 적당한 수준에서 교정할 질서와 규칙이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본고는 복합어 생성 과정에서 복합어 구성요소들의 틀 압축 과정이 상당히 동기부여되어 있음을 밝혀, 복합어라는 언어 기호도 형태와 의미 간에 유연성과 논증성이 있음을 고찰하려 한다.

2. 통사적 對 의미적 관점 간의 소통

최근 몇 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주요 사안이 되면서 이로 인해 노사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집단 총파업까지도 불사하고 있다. 파업을 중국어로 옳기면 ‘罷工’이다. 그런데 만약 ‘罷工’이란 단어의 구조를 분석하라고 하면 대부분 動句式(혹은 動賓式, 述句式, 述賓式) 구조라고 대답할 것이다. 즉, ‘工’이 목적어 노릇을 하고 ‘罷’가 동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⁷⁾ 이러한 분석 방법은 통사 관계를 빌어 단어 내부 관계를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처럼 통사적 관점으로 단어의 내부 구조를 설명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실제로, 陸志韋(1957), 趙元任(1968)이 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을 받아 의미 연구보다는 형식 분석에 치중하다 보니, 단어 분석에 있어서도 형태소의 문법적인 특성만 강조하면

6) 戴昭銘, 〈現代漢語合成詞的內部結構與外部功能的關係〉: 「符号最主要的特点是表示者和被表示者關係的任意性, 這種任意性最突出地表現在詞上。句法結構是符号的組合, 在組合時要受詞義、句法規則、搭配習慣等各種因素的制約, 必然要帶上較強的邏輯性, 缺乏構詞時的那種任意性。」(《語文研究》1988년 제4기, 26쪽)

7) ‘罷工’과 구조가 유사하게 보이는 ‘罷筆’ ‘罷教’ ‘罷課’ ‘罷市’ ‘罷手’ 등을 모두 動賓式으로 처리하고 있다. 《現代漢語造詞詞典》(延邊, 延邊大學出版社, 1992), 8-9쪽 참조.

서 복합어의 구조가 문장의 구조 방식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로 복합어의 내부 관계를 통사론적 각도에서 보는 관점은 중어학자들의 오랜 지지를 받아왔다.⁸⁾

이러한 상황은 劉叔新(1990)에 이르러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는 복합어의 내부 관계가 통사적 관계가 아님을 풍부한 예증과 치밀한 논증을 통해 역설하였다.⁹⁾ 그의 문장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으며, 그를 기점으로 하여 많은 학자들이 통사적 각도로만 복합어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른바 ‘의미적 관점’이라는 기치 아래 문법적인 속성이 아닌 의미적 속성을 강조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다.¹⁰⁾

한편, 대다수의 학자들이 통사론적 시각의 틀 안에서 복합어 구조를 연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戴昭銘(1988)과 같은 학자는 복합어 구조가 통사 구조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기존의 ‘복합어 구조=문장 구조’의 공식을 포기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주술구조(主謂式), 동목적구조(動賓式), 술보구조(述補式), 수식구조(偏正式), 병렬구조(聯合式) 등의 유형으로 복합어 전부를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종래의 유형에 새로운 몇 가지를 추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의 주장대로 상당수의 복합어에서 통사적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劉叔新은 복합어에서 통사 구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구의 어휘화’¹¹⁾와 ‘신조어의 통사 구조 모방’ 때문이라고 하였

8) 朱德熙, 《語法講義》(北京, 商務印書館, 1982), 32쪽 참조. 葛本儀《漢語詞匯研究》(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2), 69-71쪽 참조. 陳光磊, 《漢語詞法論》(上海, 學林出版社, 1994), 30-37쪽 참조.

9) 劉叔新, 《漢語描寫詞匯學》(北京, 商務印書館, 1990), 74-78쪽 참조.

10) 周荐, 〈復合詞詞素間的意義結構關係〉; 《詞語的意義和結構》(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91), 19-54쪽 참조.

黎良軍, 《漢語詞匯語義學論稿》(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5), 90-111쪽 참조.

11) Givón의 「Today's morphology is yesterday's syntax.」, 중국어에서 들어맞는 대목이다. Givón(1971)이 어휘화(lexicalization) 이론을 제기한 후, 劉叔新, 董秀芳, Packard 등이 중국어에 적용하였다. Givón, T., 〈Historical syntax and synchronic morphology〉; 《Chicago Linguistic Society》 1971. 7, 394-415쪽 참조. 董秀芳, 《詞匯化: 漢語雙音詞的衍生和發展》(成都, 四川民族出版社, 2002), 22-23쪽 참조. Packard, J., 《The Morphology of Chinese》(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150-155쪽 참조.

다. 그런데 필자의 관심은 복합어가 본질적으로 통사 구조와 동일한 구조인지 아니면 劉叔新(1993)의 말대로 ‘그림자’에 불과한 혼적인지 간에 이러한 두 가지 과정이 어떻게 발생 가능했을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당수 복합어에서 통사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분명 객관적인 현상인데 이러한 객관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근본 배경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 배경을 찾는 것이 바로 통사적 시각과 의미적 시각 간의 간극을 메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중국어 복합어와 통사 구조는 서로 동일한 인지 배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바꿔 말하면 생성 과정에서 보면, 복합어와 통사 구조는 서로 공통적인 인지 장면(cognitive scene)을 갖고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간 학자들은 복합어의 구조에 관해 의미론적 각도와 기존의 통사론적 각도 사이에서 ‘非此即彼’의 태도를 취해 왔다. 그러나 필자는 복합어 내부 구조에 대해 통사적 해석이 가능한가 아니면 의미적 해석이 가능한가에 대해 두 가지 해석 모두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복합어는 통사적 속성과 의미적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통사적 관점이나 의미적 관점을 모두 아우르는 인지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인지적 관점의 장점은 복합어 내부에 통사적 속성과 의미적 속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양자 간의 관계에 주목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통사적 관점과 의미적 관점 간의 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다.

Ⅲ. ‘罷工’의 생성 과정

1. ‘罷工’의 장면 & 틀 구조

중국어 복합어의 생성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罷工’을 예로 들어 과정을 살펴보고 한다.

‘罷工’을 中中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罷工】工人爲實現某种要求或表示抗議而集体停止工作。《現代漢語詞典》

그러나 이것은 사전에서 얻을 수 있는 사전적 의미일 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해석하면 ‘罷工’의 의미는 더욱 풍부해진다.

물론, 객관주의 의미론자들에게 단어의 의미는 기호나 숫자의 의미와 유사하겠지만, 인지적 의미론자들이 이해하는 단어의 의미에는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적인 뜻 이외에도 각 개인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백과사전적 의미도 들어 있다. 즉, 단어의 의미는 객관적인 지시관계나 진리조건 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에 따라 주관적이고 개별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의 경험을 개념화한 것이 바로 단어의 의미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는 정보나 지식적인 의미 이외에도 당연히 심리적, 감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될 수가 있다.¹²⁾

중국에서 파업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여 ‘罷工’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5·4운동(五四運動)’이다. 새로운 정세와 혁명 사상의 영향으로 1919년 5월 4일 북경에서는 반제(反帝) 반봉건(反封建) 혁명 운동이 발발하였다. ‘5·4운동’은 먼저 북경대학의 학생들에게서 시작되었는데, 중국 정부의 ‘파리강화조약(巴黎和約)’ 서명에 대해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천안문(天安門) 광장에 집결하여 반대하였다. 이후 항의 시위가 북양군벌(北洋軍閥) 정부의 진압을 받게 되자 중국 국민들의 분노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북경에 이어 상해 등 주요 도시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모두 동맹 파업을 시작하면서 대규모의 항의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북양군벌 정부는 구속된 학생들을 석방하고 파리강화조약의 서명을 거절함으로써 5·4 운동은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 우리는 ‘모종의 요구나 항의를 나타내기 위해 단체로 일을 중단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罷工’의 생성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첫 단계에서 파업의 발생 배경과 진행 상황 등을 나타내기 위해 장면(scene)이라는 개념 도입이

12) 예를 들면, ‘개’라는 단어에 대해 순수하게 언어적 의미로만 정의하면, ‘동물이며, 네 다리가 있고, 하나의 꼬리가 있으며 멍멍하고 짖고 사람을 잘 따른다.’ 쫓 될 것이다. 그러나 사고로 다리 하나를 잃은 개도 있고 사람을 공격하는 개도 있다. 즉, ‘개’는 개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네 다리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며, 반드시 사람과 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개를 인간의 반려동물이 아닌 음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려는 단어에 대한 광범위한 백과사전적 의미관을 필요로 하기에 단어의 의미는 사전적인 정의에 의해서만은 포착될 수 없다.

필요하다.¹³⁾

장면이란 일종의 시각적인 형상으로서 여러 개의 사건(event)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단어, 구나 문장은 장면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의미를 촉발(activate)한다. 하나의 장면은 한 개 이상의 사건으로 구성되지만 이때 장면이 몇 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따질 필요는 없다. 예컨대, 우리가 ‘罷工’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파업 배경과 파업 모습 등을 포함한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 순간 장면 내에 사건이 모두 몇 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장면’의 개념은 전경-배경 이론(figure-ground theory)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장면 안에는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배역들이 있는데 이를 장면 요소(scene element)라고 한다. 이를 전경-배경 이론과 연관 지어 설명해보면, 장면 가운데서 사람들의 주의를 받는 배역은 전경화(foregrounding)하여 전경이 되고 관심을 못 받는 배역은 배경화(backgrounding)하여 배경이 된다. 이렇게 사람의 인지 영역의 선별 과정을 거쳐 전경과 배경이 되는 장면 요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장면 가운데 등장하는 사건이 모두 몇 개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되고, 매 사건의 내용을 모두 파악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장면 가운데 사람의 주의를 받은 배역, 즉 초점의 대상이 되는 장면 요소들은 틀 구조(frame structure)를 만드는데 관여한다. 바꿔 말하면, 장면 내의 모든 사건들이 단어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틀 구조로 진입하게 된 사건과 또 그 속의 장면 배역만이 단어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罷工’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장면 요소들 가운데 일부만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물론 표현된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장면 요소들이 감추어져 있다. 그림으로 표현되지 못한 장면 요소들은 ‘……’로 표시하였다.

13) Fillmore는 문장의 의미와 통사 현상 간의 관계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설명하는 격 이론(case theory)을 보완하기 위해 장면 이론(scene theory)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문장이 기술하는 것은 장면(scene)이며 장면 가운데에는 각각의 참여자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사람의 인지 영역의 선별 과정을 통해 어떤 배역은 인지 영역으로 들어오고 어떤 배역은 인지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Fillmore, C. J. <Topics in Lexical Semantics>; 《Current Issues in Linguistics Theory》 1977년, 76-138 참조.

(1) '罷工'의 장면 요소들



.....
〈그림1〉

사실, 인간과 관련된 사물, 행위, 성질, 상태는 모두 장면으로 환원이 가능하다. 장면으로 환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인간과 관련된 일체의 상황은 하나하나가 사건(event)이므로 장면으로 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Wittgenstein¹⁴⁾이 말하는 「세계는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총합」, 「세계는 사건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라는 명제와 상통한다.¹⁵⁾

14) Wittgenstein의 언어철학 사상은 전후기로 나뉘는데, 전기의 대표적 저서는 그림이론으로 유명한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논리철학논고, 1922》이다. 후기의 대표적 저서로는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철학적 탐구, 1953》가 있다.

Wittgenstein(1922)의 사상은 짧고 함축적인 명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본고와 관련이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The world is everything that is the case.」(세계는 일어나는 일들의 총체이다.) ②「What is the case, the fact, is the existence of atomic facts.」(일어나는 일, 즉 사실은 사태들의 존재방식이다.) Wittgenstein(1922)은 「The world is the totality of facts, not of things.」(세상은 사물의 총체가 아니라 사실의 총체이다.) 즉, 세상은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고 언어는 그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들이란 사물들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이 된다고 이해했다. 예를 들어, 「세 마리 고양이와 회색 지붕 위에서 서로 놀고 있다」라는 말은 「고양이 세 마리」, 「회색」, 「지붕」, 「위」 그리고 「논다」는 것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언어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는 언어를 정확히 사용하면 해당하는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15) Wittgenstein(1953)의 세계와 사물에 관한 묘사는 杜桂枝(2003)을 재인용했다. 「世界就是正在發生的一切、世界是事件的總和、世界可以划分成无數个事件、世界并不

필자는 ‘장면’이라는 개념이 복합어의 생성 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본다. 특히나 두 개의 언어 성분 밖에 없는 이음절 복합어는 더더욱 그러하다. 다시 말해, 수많은 장면 배역 중에 단지 두 개의 배역만이 인간의 투시와 선별을 통해 형태소라는 이름의 언어 성분으로 실현된다. 즉, 사람의 인지 영역의 필터링을 통해 주의(attention)를 받는 성분만이 언어 성분으로 현실화되고, 주의를 받지 못한 성분들은 언어 성분으로 현실화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장면 배역 중에 어느 요소가 언어 성분으로 현실화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여기에서 틀(frame)과 윤곽부여(profiling)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틀의 개념은 Fillmore(1982)가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관련된 체계 전체를 이해해야하는 데 그러한 개념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¹⁶⁾ 이 정의를 바꿔 말하면, 틀은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배경 지식 구조로서, 단어 의미를 이해하고 기술하는데 전제는 되지만 표현은 되지 않는 인지적 구성물이다.¹⁷⁾

틀이라는 인지 모형을 사용해서 언어의 의미 현상을 다루는 이론을 틀 의미론(frame semantics)이라고 한다. 틀 의미론은 언어와 경험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경험주의적 의미론으로 인간의 경험적 지식을 체계화하고 구조화해 나가려는 의미 분석 방법론이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의미론, 즉 진리조건 의미론과는 달리 어휘의 의미 분석이 개념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 구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틀 의미론은 특정 언어 표현이 그에 해당하는 특정한 틀을 상기시킨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며 그 틀을 바탕으로 해당 언어 표현의 의미 구조를 파악한다. Langacker(1987)는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윤곽부여(profiling) 개념을 도입하였다. Langacker의 윤곽(profile)이란 언어 사용자가 특히 주목하여 현저성(prominence)이 높은 부분을 말한다. 바꿔 말하면 윤곽은 언어 표현이 직접 지시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윤곽부여란 주어진 하나의 동일한 상황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조화하고 해석

是事件的无序的堆積、世界是在邏輯空間中的事件。」杜桂枝,〈認知語言學的若干相關概念〉;《外語學刊》2003년 제3기, 40-47쪽 참조.

16) Fillmore, 〈Frame Semantics〉;《In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1982, 111쪽 참조.

17) 김동환, 〈틀의미론과 의미구조〉;《언어과학연구》1999년, 16호, 76쪽 참조.

하는 능력으로 틀 속의 어떤 요소를 전경화 하거나 두드러지게 하는 과정이다. 즉, 틀은 윤곽부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틀 의미론은 Fillmore의 틀과 Langacker의 윤곽부여의 결합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¹⁸⁾

틀 의미론에서는 단어가 그것과 관련된 백과사전적 지식인 전체 틀을 상기시키며 그 틀을 바탕으로 단어 의미가 정의된다. 나아가 단어가 상기시킨 전체 틀의 특정한 요소에 윤곽부여 함으로써 단어의 의미 구조가 밝혀진다는 것이 틀 의미론의 핵심 내용이다. 틀 의미론을 기술할 때는 먼저 해당 단어나 그 단어가 담고 있는 문장이 상기하는 틀을 식별해 내야 한다. 그런 다음에 틀의 부분 부분에 특정 명칭을 부여한다. 틀의 부분 부분을 틀 요소(frame element)라고 하며 모든 단어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틀을 상기시키며 틀에는 사건 참여자에 대한 틀 요소가 있다.

틀 의미론은 틀에 입각해서 개별 단어의 의미, 다의어의 여러 의미들 사이의 관계, 의미적으로 관련 있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은 의미적으로 관련된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틀 의미론으로 설명한 예이다.

(2) 'steal'과 'rob'의 틀 요소

행위자	물건	대상자
-----	----	-----

위와 같이 동사 'steal'과 'rob'은 동일한 틀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동사간의 의미 차이는 동일한 틀 속에 있는 틀 요소 중에서 어떤 틀 요소에 윤곽부여 하는가에 있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동사들은 그 틀을 구성하는 각기 다른 틀 요소에 윤곽부여한다는 점에서 단어의 의미가 다르다.

(2a) 'steal'의 윤곽부여

행위자	물건	대상자
------------	----	-----

(2b) 'rob'의 윤곽부여

행위자	물건	대상자
------------	----	------------

18)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의미》(서울, 태학사, 2005), 68-69쪽 참조.

즉, 동사 'steal'과 'rob'의 의미 차이는 틀 요소 간의 윤곽부여 차이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어 동사 '罷工'의 의미 구조를 살펴보자. 동사는 대개 사건을 기술한다. 이런 점에서 동사는 어떤 사건에 대한 틀을 상기시키며, 그 사건 틀에는 사건참여자에 대한 틀 요소가 있다.

(3) '罷工'의 틀 구조

工人	爲了抗議	集体	罷	工
----	------	----	---	---

〈그림2〉

이미 상술했듯, 수많은 장면 요소 가운데 주의를 받는 장면 요소가 전경화하여 전경(figure)이 되고 주의를 받지 못한 장면 요소는 배경화하여 배경(ground)이 된다. 이와 같이 인지 영역의 필터링을 통해 전경과 배경을 담당하는 장면 요소가 결정되는 과정이 바로 틀 구조(frame structure)가 형성되는 단계이다. 일단 틀 구조가 만들어지면 장면의 특정 요소에 현저성을 부여하는 윤곽부여(profiling)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그림1〉의 장면 요소들이 모두 틀 구조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선택된 몇 개의 장면 요소들만이 틀 구조로 진입한다. 또한, 틀 구조로 진입한 장면 요소들 모두가 윤곽부여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오랜 경험과 지식의 축적에 의해 윤곽부여 대상이 결정된다. 이렇게 틀 구조 속에서 윤곽부여 받은 틀 요소가 비로소 단어 층위에서 가시화되어 최종적으로 형태소 성분으로 현실화되는 것이다. 즉, 〈그림2〉에서 보듯, 윤곽부여 받은 '罷'와 '工'이 형식 층위에서 형태소 성분이 된다.

그리고 보면, 인지 장면(cognitive scene)이 아무리 복잡해도 이음질 복합어는 단지 두 개의 성분만이 형식 층위에 진입할 수 있다. 형태소의 탑재 대상이 되려면 장면 속의 배역은 반드시 전경화되고 윤곽부여(profiling)되어야 한다. 이때 어느 성분들이 최종적으로 단어의 형식 층위에 진입하여 형태소 성분으로 실현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의미 구조의 복합어가 생성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면, 수많은 장면 요소들이 혼돈스럽게 섞여 있었던 '장면 요소의 혼재' 단계를 지나 '틀 구조' 생성 단계까지 도달했다. 다음 단계는 '어형

압축(word compression)' 단계인데, 어형 압축(word compression) 단계는 윤곽 부여를 통한 '선택'과 선택 받은 요소들의 '배열'이라는 두 가지 과정을 포함한다.

2. '罷工'의 어형 압축(word compression)¹⁹⁾

틀 구조가 생성되고 윤곽부여를 통해 선택되어진 틀 요소는 이제 배열 규칙에 따라 틀 요소의 순서가 정해지고 마침내 복합어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틀 구조의 틀 요소를 일정한 배열 규칙에 따라 압축시켜 단어의 형식 층위에서 실현되는 어형을 만드는 것을 어형 압축이라고 한다. 어형 압축은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형태소의 선택과 선택된 형태소의 배열이다. 즉, 어떠한 틀 요소가 단어의 형식 층위로 진입 하느냐와 진입한 두 개의 틀 요소를 어떠한 순서로 선후 배열하느냐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그림2〉의 틀 구조 속에서 윤곽부여 받은 '罷'와 '工'의 가능한 배열 순서를 고려하여 만들어 질 수 있는 형태는 '罷工'과 '工罷*²⁰⁾이다. 이 가운데 어형 압축(word compression) 규율에 따라 윤곽부여 받은 틀 요소가 다시 배열 규칙에 따라 틀 요소의 순서가 정해지면서 복합어 '罷工'으로 완성된다.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건을 제치고 '노동자들이 모종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항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일을 중단하다'라는 사건만이 전경화하여 틀 구조 속으로 진입하고, 이렇게 틀 구조로 진입한 후에는 '노동자가 모종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항의를 표시하기 위해서'라는 틀 요소는 현저성을 갖지 못해 윤곽부여 받지 못하고 '일'과 '중단하다'라는 두 가지 틀 요소만이 윤곽부여 받아 어형 압축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工'과 '罷' 두 개 틀 요소 간의 선후 배열의 문제이다.

19) '어형 압축'이라는 용어는 袁毓林(1998)에서 힌트를 얻었다. 袁毓林, 「句子具有壓模功能, 即一個動詞能支配若干個從屬成分, 但這些從屬成分不一定能在同一個句子里共現, 一個句子只能留出四個或更少的位置供它們填入。」 본고는 이러한 '壓模' 기능이 문장에서 뿐 아니라 단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袁毓林, 〈漢語動詞的配價層級和配位方式研究〉; 袁毓林, 郭銳主編, 《現代漢語配價語法研究》第二輯(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39-41쪽 참조.

20) 工罷*는 있을 수 있는 단어(possible word)이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단어이다.

1) 어형 압축 규칙

단어 구조는 통사 구조와 비교해 볼 때 확실히 임의성이 더 강해 보인다. 시니피에(能指)와 시니피양(所指) 간의 자의성(arbitrariness)은 오랫동안 기호의 주된 특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자의성은 단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통사 구조는 기호가 결합할 때 의미, 통사 규칙, 결합 습관 등 많은 요소들의 제약을 받으므로 비교적 강한 논리성을 갖게 되어 단어에 비해 자의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지어는 중국어 복합어의 구조를 말할 때 형식과 내용 간에 유연성 또는 동기성(motivation)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저 '意合'과 '約定俗成'으로 설명하는 학자도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의 인지언어학의 패러다임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유연성과 동기성이라는 관점에서 언어 현상을 재검토함으로써 '언어가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본고 역시 이러한 흐름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미 술위구조 분석을 통해 복합어 의미 구조를 고찰한 바 있다.²¹⁾ 본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복합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충분히 논증적이고 유연적임을 설명할 것이다. 복합어 형성에서도 통사 구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규율과 조건이 상호 작용, 상호 제약하면서 복합어 기호의 형식과 내용 사이에 일정한 규율성과 경향성을 갖게 한다.

우선, '罷工'의 술위구조(predication)²²⁾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21) 필자(2006)는 《漢語水平詞匯与漢字等級大綱》에 수록된 甲, 乙, 丙급 이음절 복합어 3474개와 《現代漢語詞典》에는 있으나 《漢語水平詞匯与漢字等級大綱》에는 수록되지 않은 이음절 복합어 978개를 합친 4452개를 대상으로 단어의 의미 구조를 계량 분석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 계량자료를 바탕으로 기호와 의미의 관계에 주목하여 복합어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22) 술위구조 분석이란 본래 문장 내부 의미를 분해할 때 사용하던 방법인데 이것을 복합어 의미를 묘사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顧陽과 沈陽(2001)의 연구는 상당히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1a) 旅客 ⇨ 客 - 旅

(1b) 牧童 ⇨ 童 - 牧

(2a) 售票員 ⇨ 員 - 售票

(2b) 發起人 ⇨ 人 - 發起

(4a) 罷工: [a. 罷. 工]

술위구조는 논항(argument)과 술어(predicate)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단어 내부를 논항과 술어로 분석하는 것이 바로 술위구조 분석이다. '罷工'은 술어 1개와 논항 2개로 이루어져 있다. 'a'와 '工'은 모두 논항이다. 이 가운데 'a'가 행위자(Agent/施事) 논항인 반면, '工'은 수동자(Patient/受事) 논항이다. '罷'는 동작을 나타내는 술어이다. 이렇게 술어와 논항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4b) 罷工: [행위자-동작-수동자]

이를 살펴보면, <그림2>에서 틀 구조의 틀 성분(frame component)은 술위구조의 술어와 논항과 서로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틀 성분은 5종류의 의미 범주가 있다. 사물, 환경, 동작, 성질상태, 관계 범주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논항을 담당하는 틀 성분이 사물 범주이다.²³⁾ 처소, 시간, 범위는 사물의 외부 환경을 제공하는 환경 범주이다. 동작 술어에 대응하는 틀 성분은 동작 범주이다. 성질상태 술어에 대응하는 틀 성분은 성질상태 범주이며, 관계 술어²⁴⁾에 대응하는 틀 성분은

(3a) 電影演員 ⇨ 員 - 演 - 電影

(3b) 飛機乘客 ⇨ 客 - 乘 - 飛機

(1a)-(3b)에서 오른쪽 편은 'S-V-O'의 통사 구조를 사용하여 복합어 기저의 의미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顧陽과 沈陽은 복합어 의미를 충당하고 있는 성분들, 즉 형태소의 의미역을 규명함으로써, 복합어 내부에도 동사성 성분과 명사성 성분 간에 '동작'과 '논항'의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통사론의 논항 이론을 복합어 분석에 적용한 것으로 복합어 의미 구조 연구에 있어 새로운 탐색 방법을 제시하였다. 顧陽, 沈陽, <漢語合成復合詞的構造過程>; 《中國語文》2001년 제2기, 123쪽 참조.

23) 동사의 지배를 받는 명사성 성분의 논항에는 연구자에 따라 그 명칭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행위자(agent/施事), 수동자(patient/受事), 주체자(subject/主事), 상대자(theme/客事), 소유자(possessor/領事), 소유물(possession/屬事), 도구(instrument/工具), 재료(material/材料), 원인(cause/原因), 결과(result/結果) 등이 있다.

24) 관계 술어는 동작이나 변화 및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사물, 사건과 사건, 사물과 사건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관계 술어는 대부분이 내포된 술어로서 표층 구조에 출현하지 않는다. 왜냐면 관계 술어는 구체적인 동작행위가 아니라 추상적인 관계를 나타내므로 사람들의 주의를 받지 못해 전경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夫妻'의 술위구조는 夫妻: [夫. 和. 妻]이다. 이 중 '和'는 '夫'와 '妻'를 병

관계 범주이다. 의미 범주를 사용해 ‘罷工’의 의미 구조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4c) ‘사물1 - 동작 - 사물2’ 형식

앞에서 <그림2>의 틀 구조 속에서 윤곽부여 받은 요소는 ‘罷’와 ‘工’이므로 이들의 가능한 배열 순서를 고려할 때 만들어 질 수 있는 단어는 ‘罷工’이나 ‘工罷*’이다. 이 중 실제 객관 세계에 존재하는 단어는 ‘罷工’가 아니라 ‘罷工’이다. 이때 적용된 어형 압축 규칙을 살펴보면 다음의 ①, ② 두 종류이다.

① ‘통사 구조’ 배열 규칙

‘통사 구조’ 배열 규칙이란 통사 구조 어순의 영향을 받아 문장의 어순과 유사한 방향으로 어형이 압축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근거는 복합어 중 상당수가 구에서 어휘화했기 때문이고, 또한 새로운 단어가 필요할 때 가장 익숙한 문장 구조의 순서대로 신조어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방향의 영향으로 인해 복합어가 구나 문장과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

논항은 술어와의 의미 관계에 따라 외재 논항(external argument)과 내재 논항(internal argument)으로 구분된다. 외재 논항이란 술어의 최대 투사 바깥에 있는 논항으로 술어로부터 의미역을 직접 받지 못한다. 내재 논항이란 술어의 최대 투사 내부에 있어 술어로부터 의미역을 직접 받는 논항이다. 중국어 통사 구조에서 외재 논항은 일반적으로 동사 앞에 위치하고 내재 논항은 동사 뒤에 위치하는데, 이와 매우 유사하게 복합어 술위구조에서도 술어 앞에 위치한 것을 외재 논항이라고 하며 술어 뒤에 위치한 것을 내재 논항이라고 한다. 罷工 : [a. 罷. 工]에서 행위자 논항인 ‘a’는 외재 논항이고, 수동자 논항인 ‘工’은 내재 논항이다. 따라서 ‘통사 구조’ 순서 규칙에 따라 문장과 동일한 어순으로 모방하여 ‘罷工’으로 어형이 압축되었다. 이것은 통사 구조에서 행위자는 보통 주어를 충당하므로 동사 앞에 위치하고 수동자는 목적어를 충당하므로 동사 뒤에 위치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다. 실제로

렬로 이어주는 관계 술어이다. 다른 예로는, ‘病休’의 술위구조는 病休: [(休((a:休).因爲.(a:病))]이다. 이 중 ‘因爲’는 사건(a:休)과 사건(a:病)을 원인 관계로 이어주는 관계 술어이다.

4452개 복합어에 대해 계량 분석을 한 결과, '사물1-동작 술어-사물2' 형식을 가진 927개 복합어는 모두 '사물1'이 외재 논항이었고 '사물2'가 내재 논항이었다. 달리 말하면, '내재 논항인 사물2'가 동작 술어 앞에 오는 경우는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고 모두가 동작 술어가 '내재 논항인 사물2'의 앞에 위치했다.²⁵⁾

② '구조 긴밀' 배열 규칙

'罷工'이 이 순서대로 어형이 압축된 것은 '구조 긴밀' 배열 규칙을 적용하여 해석할 수도 있다. '구조 긴밀' 배열 규칙이란 틀 성분 간에는 압축 후 구조가 더 긴밀해지는 방향으로 배열되려는 속성이 있다. 술어와 내재 논항의 관계는 술어와 외재 논항의 관계보다 훨씬 더 긴밀하기 때문에 복합어 생성에서도 이렇게 구조가 긴밀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즉, '술어+내재 논항' 순서가 '외재 논항+술어' 순서보다 구조상 더욱 단단하기 때문에 '罷工' 순서와 같이 술어가 앞에 있는 복합어가 술어가 외재 논항 뒤에 자리한 복합어보다 수량상 훨씬 많은 것이다. 예를 들면, '國營'의 술위구조는 國營: [國. 營. b], 이를 술어와 논항으로 나타내면 '罷工'과 마찬가지로 [행위자-동작-수동자]로 표기된다. 그러나 '罷工'은 '술어(罷)+내재 논항(工)'인 반면, '國營'은 '외재 논항(國)+술어(營)'이므로 구조적으로 긴밀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배열 순서를 갖는 복합어는 그 수가 많지 않다. 실제로 계량 분석 결과, '행위자-동작-수동자' 유형 복합어 267개 가운데서 '외재 논항+술어' 배열 순서를 갖는 복합어는 전체의 4.55%에 불과했고, '술어+내재 논항' 배열 순서를 갖는 복합어는 전체의 95.5%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⁶⁾

③ '시간 순서' 배열 규칙

한편, '罷工'의 경우에 적용된 압축 규칙은 아니지만 틀 성분 간 압축 배열 규칙에는 '시간 순서' 배열 규칙이 있다. '시간 순서' 배열 규칙이란, 복합어 두 개의 형태소 간에 시간의 전후 관계 또는 인과 관계가 있다면 먼저 발생한 일을 '형태소1'

25) 예로는 搬家, 辦公, 插花, 存錢, 辭職, 搭車, 負擔, 發車, 動身, 結帳, 開機 등이 있다.

26) '행위자-동작-수동자' 유형에서 '외재 논항+술어' 배열순서의 예는 軍用, 國產, 民主, 自律 등이 있고, '술어+내재 논항' 배열순서는 把柄, 備課 등 <각주 28번>의 예와 중복된다.

에 두고 나중 발생한 일을 ‘형태소2’에 둔다는 것이다. 시간 순서에 따라 사물과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지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에 대한 인식은 ‘물처럼 시간이 흐른다’고 하는데서 볼 수 있듯이 위에서 아래로의 선형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화자의 인식 속의 있는 세계의 순서는 종종 언어 형태로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나타난다.²⁷⁾

예를 들면, ‘拆洗, 种植, 裝運, 离休, 排印, 裝卸, 听寫, 病休, 退休’ 등의 복합어는 ‘형태소1’의 동작이 먼저 발생하고 ‘형태소2’의 동작이 뒤따르는 시간 순서를 따르는 배열로 되어 있다. 또한, ‘提前, 滯后, 查明, 改善, 產出, 降低’ 등의 복합어에서 ‘형태소1’은 원인이 되는 동작을 나타내고 ‘형태소2’는 그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 역시도 원인이 되는 동작이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해야 후에 결과가 뒤따르므로 역시 ‘시간 순서’ 배열 규칙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전체-부분’ 배열 규칙

‘전체-부분’ 배열 규칙이란 복합어 형태소 간에 의미적으로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 있다면 전체에 해당하는 형태소를 앞에 두고 부분에 해당하는 형태소를 뒤에 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체 형태소1+부분 형태소2’의 순서로 어형이 압축된다는 것이다.

이 배열 규칙은 대부분 ‘소유자-관계-소유물’ 유형의 복합어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영속 관계에는 양도 가능한 관계(alienable)와 양도 불가능한 관계(inalienable)로 나눈다. 양도 가능한 관계에는 소유자와 소유물 사이에 이동과 분리가 가능하므로 그 관계는 비영구적인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사람과 장식물의 관계가 그것이다. 양도 불가능한 관계는 소유자와 소유물 사이가 이동과 분리가 가능하지 않는 고정적이고 영구적인 관계로 예를 들면 사람과 이름의 관계이다. 필자가 ‘소유자-관계-소유물’ 유형의 복합어를 고찰한 결과, 소유자와 소유물 사이에는 대부분 양도 불가능한 관계임을 발견하였다. 예컨대, ‘熊掌, 刀刃, 車把, 蛇足, 屋脊, 象牙, 牛角, 猪肝, 羊毛, 地形, 國力, 貝殼, 鹿角, 豆芽, 刀把, 壺嘴, 虎口’ 등이다. 또한 형태소의 순서를 살펴보니 ‘사물1-사물2’ 순서가 ‘사물2-사물1’ 순서보

27) 戴浩一, 〈時間順序和漢語的語序〉, 1985); 黃河譯, 《國外語言學》 1988년 제1기, 10-20쪽 참조.

다 수가 많았는데, 이는 양도 불가능한 관계는 전체로서 그 일부분을 참조하는 것이지 부분으로서 전체를 참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²⁸⁾ 다시 말해 소유자는 참조물로서 그 일부분이 되는 소유물을 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계량 분석을 한 결과, ‘소유자-관계-소유물’ 유형 복합어 180개 가운데서 ‘사물2-사물1’ 배열 순서를 갖는 복합어는 전체의 13.3%에 불과했고,²⁹⁾ ‘사물1+사물2’ 배열 순서를 갖는 복합어는 전체의 86.7%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어형 압축 규칙의 복잡성

복합어 압축 규칙을 고찰한 결과, 복합어 의미 구조는 각종 요소와 조건의 제약 하에 어형 압축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각종 요소와 조건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압축 규칙만이 절대적으로 또는 무조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어느 의미 구조에서는 압축 규칙 ‘값’의 영향과 통제 하에 나머지 압축 규칙들은 열세에 놓이게 되고, 또 다른 의미 구조에서는 압축 규칙 ‘을’이 우세를 차지한다.

(1) 위에서 살펴보았듯, ‘소유자-관계-소유물’ 형식에서는 형태소 순서가 ‘사물1-사물2’ 유형이 ‘사물2-사물1’ 순서의 유형보다 훨씬 더 많다. 이것은 ‘전체-부분’ 배열 규칙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인지적으로 전체는 부분보다 항상 두드러지기 때문에 ‘사물1-사물2’ 순서 유형이 ‘사물2-사물1’ 순서 유형보다 많은 것이다.

(2) ‘행위자-동작-결과’와 ‘주체자-동작-결과’ 형식에서는 ‘사물1-사물2’ 순서 유형의 복합어가 ‘사물2-사물1’ 유형의 복합어보다 훨씬 많다.³⁰⁾ 이것은 인과 관계

28) 참조물(reference)이란 우리의 인지행위를 쉽고 빠르고 만드는 일종의 인지적 ‘창구’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인지적 현저성(saliency)을 띠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참조물을 선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간 아닌 것보다는 인간에게 우선권을 주고, 부분보다는 전체에게 우선권을 주며,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에 우선권을 주고, 잘 보이지 않는 것(비가시적)보다는 잘 보이는 것(가시적)에 우선권을 주는 등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김진우, 《인지언어학의 이해》(서울, 한국문화사, 1999), 285-286쪽 참조.

29) ‘사물2-사물1’ 배열 순서를 갖는 예로는 帝國, 磁卡, 病句, 草地, 地主, 鉛筆 등이 있다.

30) ‘행위자-동작-결과’와 ‘주체자-동작-결과’ 형식에서 ‘사물1-사물2’ 배열순서의 예는 人禍, 筆迹, 火災, 果樹, 化石, 產品 등이 있다.

로 인한 '시간 순서' 배열 규칙을 준수한 것이다.

그러나 상술한 (1)과 (2) 모두는 그 압축 결과가 목적물이 참조물보다 현저하다는 인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또한, 외재 논항이 내재 논항보다 더 현저하여 쉽게 목적물이 된다는 인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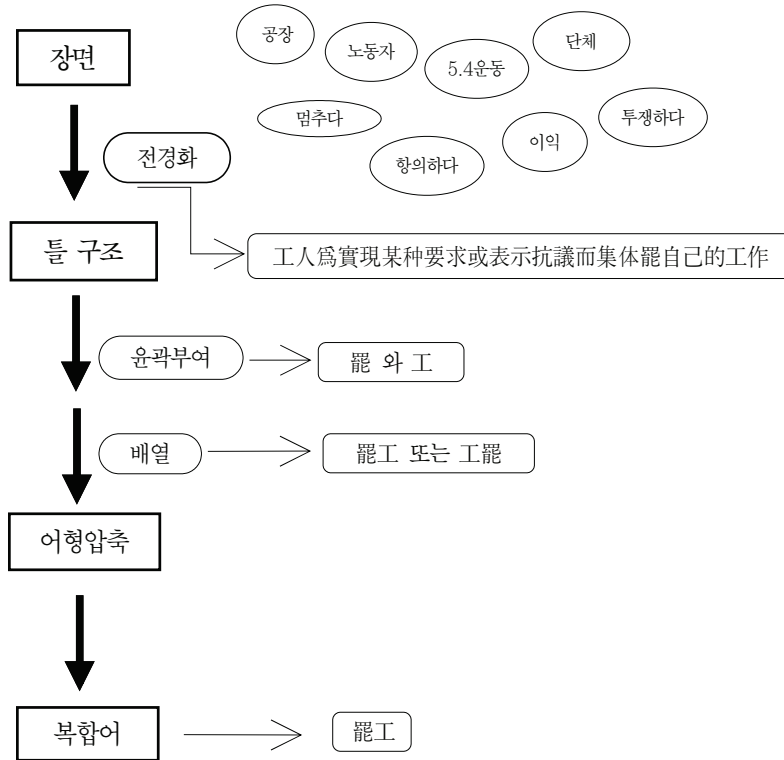
복합어 술위구조에서 술어 앞에 위치한 것을 외재 논항이라고 하며 술어 뒤에 위치한 것을 내재 논항이라고 하므로 '사물1'은 외재 논항이 되며 '사물2'는 내재 논항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논항들은 그 지위가 같지 않아서 외재 논항 중의 행위자가 가장 높은 의미역 층위(thematic hierarchy)에 위치한다. 가장 높은 의미역 층위에 있다는 것은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뜻이므로 쉽게 전경화(foregrounding)되어 목적물이 된다. 즉, 외재 논항인 행위자에 해당하는 '사물1'이 내재 논항인 '사물2'보다 쉽게 목적물이 되기 때문에 '사물2-사물1' 배열순서가 '사물1-사물2' 배열순서보다 수량적으로 더 많은 것이다.

그러나 (1)의 '소유자-관계-소유물' 형식에서는 목적물이 참조물보다 현저하다는 압축 규칙이 '전체-부분' 배열 규칙과 경쟁한 결과, '전체-부분' 배열 규칙이 우세를 차지하여 '사물1-사물2' 배열순서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2)의 '행위자-동작-결과'와 '주체자-동작-결과' 형식에서도 외재 논항이 내재 논항보다 더 쉽게 목적물이 된다는 인지 규칙이 '시간 순서' 배열 규칙과 경쟁한 결과, '시간 순서' 배열 규칙이 우세를 차지하여 '사물1-사물2' 배열순서가 '사물2-사물1' 배열순서보다 더 많게 된다. 이렇게 어형 압축에 관여하는 배열 규칙들은 매우 복잡하게 상호 작용, 상호 견제, 상호 경쟁을 한다. 바로 이 때문에 복합어 의미 구조는 일관된 설명이 불가능하고 비논증적이며 자의성만 있는 구조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상황이 복잡하고 변수가 많다고 해서 규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언어는 자기 조직성이 매우 강한 구조이다. 그 언어 단위가 어떠한 결합 방식으로 새로운 단위를 생성하든지 간에 반드시 일련의 원칙과 규율을 준수하기 마련이다. 그래야만 항상 상대적으로 안정된 체계 속에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罷工'의 생성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많은 장면 요소 가운데 주의를 받는 장면 요소가 전경화하여 틀 구조로 진입한다. 이때 틀 구조 내에는 다수의 틀 요소가 경쟁을 하는데 윤곽부여를 통해 틀 요소가 선택된다. 이후 선택 받은 요소들은 다시 어형 압축 규율의 영향과 지배하에 선후 배열

을 확정지으면 비로소 복합어 '罷工'이 생성된다. 이 내용을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5) '罷工'의 생성 도식



IV. 복합어의 형식층 & 의미층

상당수 학자들이 강조하듯, 복합어의 구조와 문장의 구조는 상당수 예외가 있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가지런한 대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통사적 관점과 의미적 관점이 서로 의견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대립하긴 했지만, 중국어 복합어의 통사 구조와 의미 구조 간에 일대일 대응 관계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대응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劉叔新

등은 복합어의 구조가 문장 구조와 유사해 보이는 이유에 대해 ‘구가 어휘화 결과’와 ‘신조어의 통사 구조 모방’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고의 관심은 “어떻게 구가 단어가 될 수 있었을까?”와 “어떻게 신조어가 통사 구조를 모방할 수 있었을까?”하는 데 있다. 즉, 이러한 과정들이 발생 가능하게 된 보다 근원적인 배경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고는 두 가지 각도에서 설명한다. 하나는 언어의 생성 기제에서 찾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식층과 의미층 간의 관계에서 찾을 것이다.

첫째, 그 근본 배경을 언어의 생성 메커니즘에 두려고 한다. 복합어와 문장은 생성되는 과정에서 공통된 인지 장면(cognitive scene)을 배경으로 하고 공통된 인지 과정을 겪고 공통된 인지 규율의 제약을 받는다.

우선, 다음의 장면(scene)을 상상해 보자.

(6) 銀行職員在銀行通過電腦為客戶存款開立帳号

(6)은 여러 개의 사건으로 구성된 하나의 장면이다. 다음 (7a-8e)는 장면 (6)에 대한 다양한 언어 형식이다.

- (7a) 銀行職員在銀行通過電腦為客戶存款開立帳号
- (7b) 銀行職員通過電腦為客戶存款開立帳号
- (7c) 在銀行通過電腦為客戶存款開立帳号
- (7d) 銀行職員在銀行通過電腦開立帳号
- (7e) 在銀行為客戶存款開立帳号
- (7f) 為客戶存款開立帳号
- (7g) 通過電腦開立帳号
- (7h) 在銀行開立帳号
- (8a) 帳戶
- (8b) 存戶
- (8c) 帳款
- (8d) 存帳*
- (8e) 電帳*³¹⁾

31) (8d)와 (8e)는 생성 가능(possible word)하지만 실제로 객관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7a-8e)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장면을 가지고 실제로 생성할 수 있는 언어 형식의 수는 위에 나열한 것보다 더 많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동일한 장면을 가지고 서로 다른 언어 형식을 만드는 것일까?

인간의 객관 세계에는 실제로 많은 장면(scene)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장면들은 사건(even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건들은 상호 연관된 하나의 네트워크이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나 장면에 대해 사람들마다 다른 설명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동일한 하나의 의미 틀은 단어로 압축될 수도 있고, 구로 압축될 수도 있고, 문장으로 압축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의미 틀을 구성하는 어떤 틀 요소는 문장이나 구에서는 단어로 실현되지만, 단어에서는 형태소로 실현된다. 즉, 동일한 장면이지만 언어로 실현될 수 있는 형식은 다양하다는 것이다.

복합어 ‘親朋’은 고대 중국어의 ‘親戚和朋友’라는 구에서 어휘화한 것이다.³²⁾ 이때 구 ‘親戚和朋友’가 나타내는 의미 틀은 복합어 ‘親朋’이 나타내는 의미 틀과 동일하다. 또한, 최근의 신조어 ‘中水’는 ‘中等質量的水’라는 통사 구조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복합어이다. 여기에서 ‘中等質量的水’가 나타내는 의미 틀과 ‘中水’가 나타내는 의미 틀 역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어떠한 의미 틀은 단어로 압축될 수도 있고, 구로 압축될 수도 있고, 문장으로 압축될 수도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다른 언어 층위에 있으면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언어 단위들은 언어 기저층에 자리하고 있는 동일한 의미 틀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서로 다른 층위의 언어 단위들이 동일한 의미 틀에서 출발하므로, 복합어의 구조가 통사 구조와 기본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하겠다.

둘째, 상당수 복합어에서 통사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로 인해 통사적 유형과 의미적 유형 간에 기본적인 대응 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층위에서 하나의 동일한 대상을 관찰했기 때문이다. 언어는 형식층과 의미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다면체이다. 언어는 형식층과 의미층이 각기 존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덩어리이다. 사실, 모든 언어 조각들은 동시에 한 가지 이상의 층면에서 조직되어 있는데, 만약 한 대상에 대해 각각 다른 층면에서 바라보고 관찰했다면 그 관찰 후 얻게 되는 결과는 당연히 다를 수

32) 다른 예로는 心醉, 力求, 此刻, 尋根, 妻子, 老少 등이다. 劉叔新, 〈詞的結構問題〉: 《語文學習》1993年 第2期, 34쪽 참조.

밖에 없다. 다시 말해 어느 층위에서 복합어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고 해석될 것이다.

그리고 보면, 복합어의 통사적 속성 또는 의미적 속성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에 대한 두 가지 속성으로, 사실은 하나의 실체에 대한 다른 차원의 파악인 것이다. 이처럼 각기 다른 위치에서 동일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기에 관찰의 결과가 거울에 비치듯 똑같이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대응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양자는 서로 완전히 다른, 그래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상대방이 존재하는 전제와 이유가 된다. 왜냐하면 언어는 조화로운 완전체이므로 형식층과 의미층은 절대 별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미론적 관점과 통사론적 관점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응하고 보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V. 나가며

중국어 복합어 생성 과정에 관한 본고의 출발점은 인지언어학의 관점이다. 그동안 복합어 내부 구조를 둘러싸고 통사적 관점과 의미적 관점이 커다란 시각 차이를 보이면서 대립되어 왔지만, 양측 어느 쪽도 복합어 의미 구조에 관해 만족할 만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통사적 관점과 의미적 관점 모두 복합어의 내부를 바라볼 때 그 관찰 시선이 언어의 표층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언어는 단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런데 '의미'는 우리가 쉽게 다가가 볼 수 있는 표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지하기 어려운 표층 아래의 가장 깊은 층에 자리하고 있다. 게다가 의미는 인간의 정신 및 사유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다단하다. 따라서 종래의 통사적 관점과 의미적 관점처럼 그 연구 시각을 표층에만 두고서는 언어의 기저층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관찰해 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본고는 인지적 관점을 기반으로 관찰 시각을 언어 기저층으로 확대하였다.

복합어 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의 입장은 복합어를 형태소의 직접적인 결합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그들에게 복합어 내부의 심층적인 의미 관계는 고려 대상

이 아니었다. 이에 반해, 본고는 복합어 형성 과정을 단순한 형태소의 결합으로 보지 않고, 언어 기저층에 있는 인지 장면부터 틀 요소의 선택과 배열까지 연속적이고 동태적인 과정까지 인식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관찰 시각이 표층이 아니라 기저층에 있으므로, 기저층에 있는 무수한 인지적 장면들에 주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복합어 구조 연구에 있어서 통사론적 시각과 의미론적 시각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갈등을 극복하는 길은 복합어가 통사적 속성과 의미적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양자 간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다. 사실, 본고의 인지적 관점이란 종래의 통사적 관점과 의미적 관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관점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며, 나아가 양자 간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일정한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參考文獻】

- 김동환, 〈틀의미론과 의미구조〉: 《언어과학연구》 1999.16.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의미》, 서울, 태학사, 2005.
 김진우, 《인지언어학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1999.
 이성준, 《홈볼트의 언어철학》,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이정민, 배영남, 김용석, 《언어학사전》, 서울, 박영사, 1987.
 임지룡, 《인지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1997.
 시정곤, 고광주, 유혜원, 김미령, 《논항구조란 무엇인가》, 서울, 월인, 2000.
 이정심, 〈現代漢語複合詞語義框架研究〉, 南開大學中文科 박사논문, 2006.6.
 陳光磊, 《漢語詞法論》, 上海, 學林出版社, 1994年.
 戴浩一, 〈時間順序和漢語的語序〉: 黃河譯《國外語言學》1988年 第1期.
 戴昭銘, 〈現代漢語合成詞的內部結構与外部功能的關係〉: 《語文研究》1988年 第4期.
 董秀芳, 《詞彙化: 漢語雙音詞的衍生和發展》, 成都, 四川民族出版社, 2002年.
 杜桂枝, 〈認知語言學的若干相關概念〉: 《外語學刊》2003年 第3期.
 葛本儀, 《漢語詞匯研究》,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2年.
 顧陽, 沈陽, 〈漢語合成複合詞的構造過程〉: 《中國語文》2001年 第2期.
 賈彥德, 〈對現代漢語語義格的認識與劃分〉: 《語文研究》1997年 第3期.
 黎良軍, 《漢語詞彙語義學論稿》,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5年.

- 劉寧生, 〈漢語怎樣表達物體的空間關係〉; 《中國語文》1994年 第3期.
- 劉寧生, 〈漢語偏正結構的認知基礎及其在語序類型學上的意義〉; 《中國語文》1995年 第2期.
- 劉叔新, 《漢語描寫詞彙學》, 北京, 商務印書館, 1990年.
- 劉叔新, 〈復合詞結構的詞彙屬性兼論語法學詞彙學同構詞學的關係〉; 《中國語文》1990年 第4期.
- 劉叔新, 〈詞的結構問題〉; 《語文學習》1993年 第2期.
- 陸志章, 《漢語的構詞法》, 北京, 科學出版社, 1957年.
- 沈家煊, 〈R. W. Langacker的認知語法〉; 《國外語言學》1994年, 第1期.
- 沈家煊, 〈有界与'无界'〉; 《中國語文》1995年, 第5期.
- 沈陽、鄭定歐主編, 《現代漢語配價語法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5年.
- 孫常叙, 《漢語詞彙》,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56年.
- 徐通鏘, 〈核心詞和漢語的語義構辭法〉; 《語文研究》1997年 第3期.
- 楊成凱, 〈Fillmore的格語法理論(下)〉; 《國外語言學》1986年 第3期.
- 袁毓林, 《語言的認知研究和計算分析》,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年.
- 袁毓林, 〈漢語動詞的配價層級和配位方式研究〉; 《現代漢語配價語法研究》第二輯 袁毓林, 郭銳主編,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年.
- 袁毓林, 〈論元角色的層級關係和語義特徵〉; 《世界漢語教學》2002年 第3期.
- 趙元任, 《國語入門》, 李榮 譯, 《北京口語語法》, 北京, 商務印書館, 1985年.
- 張壽康, 〈略論漢語構詞法〉; 《中國語文》1957.6.
- 周 荇, 〈復合詞詞素間的意義結構關係〉; 《詞彙的意義和結構》,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91年.
- 朱德熙, 《語法講義》, 北京, 商務印書館, 1982年.
- 《現代漢語詞典》(修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1998年.
- 《現代漢語造詞詞典》, 延邊, 延邊大學出版社, 1992年.
- 《現代語言學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00年.
- Fillmore, C. J., 〈Topics in Lexical Semantics〉; 《Current Issues in Linguistics Theory》1977.
- Fillmore, C. J., 〈Frame Semantics〉; 《In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1982.
- Fillmore, C. J., 〈Frames and the Semantics of Understanding〉; 《Quaderni di semantica VI.2》1985.
- Geoffrey Sampson, 권연진 역, 《현대 언어학의 흐름》,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1999.

- Givón, T., 〈Historical Syntax and Synchronic Morphology〉: 《Chicago Linguistic Society》1971.7.
- Langacker, R. W.,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Theoretical Prerequisites》(Volume 1),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 Langacker, R. W.,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Descriptive Application》(Volume 2),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 Leech, G. N., 《Semantics》, Harmondsworth, Penguin, 1983, 李瑞華等譯,《語義學》,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1987.
- Packard, J., 《The Morphology of Chine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 Talmy, L.,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1.》, Cambridge, MA, MIT Press, 2000.

【中文提要】

長期以來，在復合詞結構的研究中，句法構詞理論和語義構詞理論之間一直存在着爭議和分歧。但實際上，這兩種不同的研究角度有一個共同點，即過去的復合詞研究缺乏“復合詞語義的底層是認知場景”的認識。語義的底層是認知場景，場景中存在多個語義角色，角色之間存在着多種語義關係。以往的復合詞研究側重於語素所表達的語義角色和語義關係，對場景中未被現實化的語義角色和語義關係則疏於注意。因此未能充分展開復合詞語義的深層結構。

認知語言學的相關理論是本研究的一個出發點，也是展開討論的重要依據。鑒於此，本文從“復合詞語義的底層是認知場景”的認識出發，應用認知語言學的相關理論如圖形-背景理論、場景理論、框架理論、論元結構理論等，對復合詞‘罷工’的生成過程進行描寫。而且從認知角度探索復合詞語義框架的壓模規律。本文對語料作了框架壓模情況的考察之後，發現復合詞的結構並非都是一般所說的那樣“任意的”、“意合的”，而是有理可據的。

我們看到，儘管復合詞的語義結構類型和句法結構類型之間不存在一一對

應關係，但是每一种語義結構類型的大部分詞還是對應于某一類句法結構類型。之所以語義結構類型和句法結構類型之間能這樣基本對應，根本原因在于，語義結構類型和形式結構類型是從語言的形式層和語義層兩個不同層面對同一對象所作的分類，語義結構是形式結構的基礎，形式結構是處于語言底層的語義結構在語言表層的映射，所以兩者的基本對應是必然的。本文解釋復合詞的語義表達與形式表達之間的關聯，最終溝通復合詞的形式層和語義層。

復合詞內部的語義本身就是復雜多樣、拐彎抹角的，而這樣的語義內容改寫成一種簡單明了、具有一定結構規律的形式語言是難度比較大的工作。本文作為把認知語言學理論應用于復合詞結構研究的一種嘗試，對語義構詞的探索還需要做出更多的努力。

【主題語】

場景，框架成分，凸顯，述謂結構，壓模規律，臨摹性

투고일: 2012. 7. 15 / 심사일: 2012. 7. 20~8. 5 / 게재확정일: 2012. 8. 10